

# 版權정보 허술한 번역서들

송상용  
한림대 교수·본지 편집위원

책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잠깐 들춰보아도 책의 질을 금방 알 수 있다. 길에서 천원에 파는 덩핑 책은 표지부터 날림이라는 표가 난다. 저자, 역자는 모두 가공인물이고 용지, 인쇄, 판권도 허술하다. 하나 버젓한 출판사 책에도 문제는 없지 않다.

최근에 나온 노벨의학상을 다룬 어떤 책은 내용은 훌륭했는데 아무리 찾아 보아도 저자가 없었다. 번역, 번안의 경우는 역자를 안 밝히거나 '편집부 역'으로 나온 책을 본다. 근년에 들어 역자 이름을 내세우기 거북한 이념서적에 편집부가 끈질기 등장했다. 책일질 사람이 없는 이런 책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아도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요즘엔 줄었지만 편집부나 이름없는 역자 위에 '아무개 감수'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다. 이런 책은 대체로 믿기가 어렵다. 명사는 돈받고 이름만 빌려 주었을 뿐, 실제로 원고를 보지 않았음을 세상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레도 이것은 전혀 관여한 일이 없는 거물이 역자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교적 양심적이라 할 수 있다.

번역서에는 원저자 이름, 원서 제목, 발행지, 출판사, 발행년 등 기본정보가 원어로 나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는 책은 극히 드물다. 속표지 뒤에 이런 정보가 없는 것은 보통이고, 역자후기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는 난감하다.

책은 판을 거듭하면서 개정, 증보되게 마련이

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말로 출판되기도 하며 영국책이 미국에서 제목, 내용이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판을 대본으로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밝힌 책은 별로 없다. 정보가 전혀 없는데다 제목마저 멋대로 바뀌어버리면 원서를 추적할 도리가 없다.

원저자의 한국어판을 받아 실는다면 그 이상 바랄 일이 없겠으나, 최소한 저자의 약력은 근황을 조사해 정확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벌써 죽은 사람을 살아 있다고 하거나 10년전 낡은 경력을 늘어 놓은 것을 보면 역자의 성실성에 의심이 간다.

이렇게 체재를 갖추지 못하면 내용이 충실할지도 모를 책의 인상이 흐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너무 안이하게 만든다. 조금만 성의를 들여도 이런 결함은 고쳐질 수 있다. 책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에 관심을 갖는 출판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 출판저널

통권 제35호/1989년 2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주간—李勝羽  
편집차장—康鐵柱  
기자—吳愛里 南眞祐 金芝媛  
디자인—尹貞子

포토디렉터—朱明德  
사진—全惠敬

업무·광고—梁承杓 崔兌源  
洪先基 金汝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식

출판저널—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내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愼錫慶 安秉永  
安煥濟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毅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映 鄭元植 鄭鎮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鍾華 韓相震 韓勝憲(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 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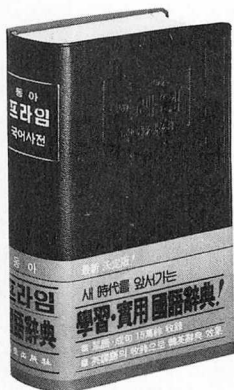
##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2월20일까지 「출판저널」 독자퀴즈 담당자 앞(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37호(3월 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동아프라임국어사전」(정가 85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프라임 國語辭典 동아출판사

### 문제1

인간은 아득한 옛날부터 좀더 맛있는 요리를 먹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존하는 最古의 요리책은, 서기 1세기경에 살았던 미식가 아피키우스가 쓴 「料理에 관해서」이다. 저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

- 1. 프랑스
- 2. 고대 로마

### 3. 고대 그리스

### 문제2

잡지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magazine' (매거진)이라고 부른다. 아랍어의 'makhzan'(매크잔)이 어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힌트: 프랑스어 magasin)

- 1. 저장한다
- 2. 흥미롭다
- 3. 여유롭다

### 문제3

玄奘이라 하면 唐나라의 고승(三藏)으로 천축국(인도)에 가서 불경을 연구한 세계적인 학승이었다. 그는 16년간의 外遊를 통해서 보고 들은 唐代의 서역, 인도의 풍물 등을 정확하게 기록한 地誌를 남겼다. 모두 12권으로 이루어진 이 地誌의 이름은 무엇인가?

- 1. 往五天竺國傳
- 2. 大唐西域記
- 3. 入唐求法巡禮行記

### 문제4

조선조 성종의 명을 받들어 성현, 신말평, 유자광 등이 편찬한 음악서로서 당대의 음악원리 및 악기 등에 관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 1. 악학궤범
- 2. 월인천강지곡
- 3. 용비어천가

### 제33호 독서퍼즐 정답

「독서퍼즐」에 응모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3호(1월 5일자)퍼즐에 응답해 온 엽서를 모두 125통, 이중 정답은 104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 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 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 1. ② 김억

「해파리의 노래」는 4·6판 162면 반양장이며 가격은 80전이었습니다. 모두 83편의 시가 수록돼 있는데, 저자의 초기 시풍을 잘 보여 주는 「갈매기」 「초순달」 「눈물」 「내 설움」 등이 실려 있다.

### 2. 뒷간(화장실)

宋나라 인종의 신하였던 錢惟演만이 아니라 宋緩 역시 측간에 갈 때는 반드시 책을 갖고 들어갔다고 한다. 宋代의 「歸田錄」에 따르면, 그가 측간에서 “문장을 낭송하

는 소리가 원근에 낭랑하게 들렸다”고 한다. 「귀전록」의 저자 謝希深 역시 「三上」인 馬上, 枕上, 廁上에서 글을 썼다고 하니, 예부터 중국인들은 측간을 독서와 문장짓는 장소로 애용한 모양이다.

### 3. ① 아무데도 없는 곳

‘유토피아’(Utopia)는 토머스 모어경이 희랍어 ‘ou’(영어의 no)와 ‘topos’(영어의 place)를 결합해 만들어 낸 造語이다. 즉 ‘이상향’이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 4. ③ 다니엘 디포우

이 긴 소설제목 줄여, 흔히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이라고 부르고 있다.

### 5. ③ pirated edition

‘pirate’는 해적, 표절자, 도작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출제·홍윤기

### 당첨자

박창호(서울 관악구 신림9동 1537-11호)

홍성민(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

오정학(서울 구로구 신홍본동 868-28)

정규호(경남 밀양시 내이동 밀성여상)

홍승미(대구시 남구 대명9동 629-9번지 15통 6번)